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002

2008년 2월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논문

南冥 曺植의 學問과 現實認識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임 승 희

南冥 曺植의 學問과 現實認識

A Study on Jo Shik's Learning and Recognition on Reality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임 승 희

南冥 曺植의 學問과 現實認識

지도교수 이 종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역사교육)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임 승 희

임승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진 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종 범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숙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머리말.....1

Ⅱ. 學問 形成의 背景.....3

1. 修學과 交遊.....3
2. 慶尙右道의 現實 批判的 學風.....6
3. 講學의 중심무대 智異山.....9

Ⅲ. 조식의 學問과 出處觀.....12

1. 老 · 佛 · 陽明學의 이해와 비판.....12
2. '敬 · 義' 중심의 實踐 學問.....15
3. 現實認識과 出處觀.....18

Ⅳ. 조식의 活動과 役割.....24

1. 乙卯辭職疏.....24
2. 속리산 遊山.....29
3. 李樑 事件과 曺植.....33
4. 戊辰封事.....36

Ⅴ. 맺음말.....40

참고문헌.....42

ABSTRACT

A Study on NamMyung Jo-Shik's Learning and Recognition on Reality

Seung-hee Im

Advisor : Prof. Jong-bum Lee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scholarship's background, study, government's view of Jo-Shik(1501-1572), and his activity and role in Literati through previous studies. With this study, I will examine what his scholar does mean to us.

The background of his scholar is greatly influenced from both economic base of his maternal line and the house of his wife's parents and geographical condition as sarim(士林) of kangwoo(江右) in kyungsang(慶尙). He accepted the history of NoJung, Buddhism and Ju Wang school only if the scholar is available for the real life. Thus he emphasize the respect(敬), Justice(義) for practical stydy. He intended to accomplish the royal road for the people, we can recognize his philosophy through the appeal to the king.

Jo-Shik made friends with various scholars, build communication network. The an assembly of Bo-Eun is typical example. For this reason, Hoon Goo party felt the political crisis, so they would

terminated the Sa-Rim party. Lee-Ryang event is typical case. Though they are snuffed out by the relative on king maternal line, they have the political power at Sun-Jo's regime. But they didn't recongnize the political real, so they lost political power and were splitted and collapsed. Only Jo-Shik greatly had criticized the political real, this point is linked with practical school(實學思想).

The life of Jo-Shik is composed of the consistent effort to make the people happy through completing the royal road plitics.

Today, we are drowned at value disorder, but if we could learn the civility, fundamental rule, common sense from his philosophy, His philosophy would be splendid in these day.

Ⅰ. 머 리 말

15세기 후반 士林들은 金宗直(1431～1492)을 필두로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고 중종 대에 이르러서는 趙光祖(1482～1519)를 중심으로 '至治'를 이상으로 삼아 왕도정치를 실현한다는 이념에 동조하는 사림들이 결집하면서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하기에 이르렀다.[1)]

사림들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학문에 한계가 있음을 비판하고, 修己를 바탕으로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사림의 이와 같은 입장은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勳戚勢力들과 政治・思想的 대립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士禍라 한다.

사화로 인해 군신윤리의 변화는 더욱 확장되고 이로 인해 대개의 사림들은 출세보다는 은거의 삶을 택하고 자신들의 학문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상호 소통망을 형성하였으며,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활동을 전개하면서, 문인 양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였다.

성리학의 이해에 있어서도 주자 성리학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입장, 북송대 학자들의 학풍에 치우친 입장, 性理學과 老莊學・陽明學 등을 절충하는 입장 등 다양한 학풍을 가진 학파로 분화되었다.

이런 다양한 입장을 가진 학자들 가운데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性理學과 老莊學・陽明學 등을 절충하여 실천적 성리학에 힘썼던 인물 중 한명이 南冥 曺植(1501～1572)이다.

조식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그 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이수건은 조식의 生涯와 思想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남명학파와 퇴계학파・기호학파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았다.[2)]

신병주는 조식 학풍의 특징을 실천성 강조와 주자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

---

1) 이종태, 「전기 사림파・도학적 실천 정신의 착근」『조선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7, 60쪽
2) 이수건, 「남명 조식과 남명학파」『민족문화논총』2・3 합집, 1982

는 사상적 開放性·多樣性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식의 학풍이 조식 문인들에게 계승된 양상을 검토하였다.[3]

최영성은 조식의 학문정신과 출처관 등을 분석하여 당대 및 후대인들이 조식을 '경·의'를 바탕으로한 실천적 학자로 평가하였음을 검토하였다.[4] 권인호는 조식과 이황의 出處 義理論을 鄭夢周(1337~1392)와 吉再(1353~1419)에 비교하였고,[5] 또한 조식의 경세사상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6]

문화가 그 시대적 소산물이었듯이, 한 학자의 사상이나 학문 경향도 그가 처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조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정치적 현실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며, 또한 고쳐지고 변질된 후대의 자료나 관념에 사로 잡혀 비판 없이 당시를 보려 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식의 학문에 경상우도와 지리산이라는 지역적 배경이 미쳤던 영향을 살펴보고, 성리학의 이론 중 敬·義를 학문의 중심에 놓았던 이유를 살펴보며, 조식이 성리학 이외의 다른 학문을 수용한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조식이 처사적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고, 처사적 삶속에서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비정치적 일상의 정치성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역사적 사건을 파악하여 사림들 속에서 조식의 役割과 位相을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

3) 신병주, 「남명조식의 학풍과 남명문인의 활동」『남명학 연구 논총』3, 1995
4) 최영성, 「조남명의 학문정신과 출처관 연구」『남명학 연구 논총』4, 1996
5) 권인호, 「남명조식의 현실인식과 출처사상 연구」『남명학 연구 논총』3, 1995
6) 권인호, 「남명의 경세사상 연구」『남명학 연구 논총』2, 1992

Ⅱ. 學問 形成의 背景

1. 修學과 交遊

조식은 연산군 7년(1501)에 경상도 三嘉縣 토동 외가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昌寧으로 고려 초기에는 평장사를 9대에 걸쳐 역임한 벌족이었지만, 고려 말부터 고조부이래로 벼슬한 이가 별로 없어 가세는 한미하였다.

부친 彦亨(1469～1526)과 숙부 彦卿(1487-1521)이 문과에 급제하여 사족으로 성장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중종 때 숙부가 조광조 일파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모처럼 중흥을 맞이했던 가문은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7)]

이렇듯 조식의 父系는 부침을 거듭하였으나, 고조모에서 모친에 이르는 母系는 대체로 丹城縣을 중심으로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8)] 또한 처가는 일찍이 전라도에서 이주한 南平曺氏로서 장인인 忠順衛 曺琇는 김해에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부호였다.[9)] 조식이 김해의 탄동에 거주하면서 山海亭을 짓고 강학에 힘썼는데, 처가의 재력이 적잖은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0)]

조식은 외가에서 서울로 올라와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이 시기에 李恒(1499～1566), 李潤慶(1498～1562), 李浚慶(1499～1572)등과 교유하였고, 청년기에 교유한 成守琛(1493～1564), 成守琮(1495～1579)형제와는 평생 학문적 동반자가 되었다.

그것은 이들 형제들의 의기가 욕심이 없고 담백하였으며, 정신의 경지가

---

7) 김충열,「생애를 통해서 본 남명의 위인」『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1983, 68쪽
8) 이수건,「남명조식과 남명학파」『한국의 사상가 10인-남명조식』, 예문서원, 2002, 88쪽
9) 신병주,『남명학파와 화담학파』, 일지사, 2000, 66쪽
10) 일반적으로 자녀의 균분상속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던 당시에는 선비들이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학문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외가나 처가의 경제적 기반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높아, 도덕과 문장이 맑고 깨끗하며 아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조식은 이들 형제의 영향을 받아 지난날의 속인의 기질이나 취향을 떨쳐버리고 보다 높고 깊은 인생의 경지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때 유서 외에 노장서와 불서를 섭렵하기도 했다.[11]

조식은 젊은 시절 예법에 구애받지 않아 스스로 그 재주를 과시하는가 하면 문장은 『左傳』과 柳宗元(773～819)의 글을 더 좋아 하였고, 과거 급제나 공명은 손쉽게 이룰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숙부 언경을 위시한 기묘사림들의 억울한 죽음을 듣고 벼슬길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식은 『性理大典』을 읽다가 許魯齋(1209～1281)가 말한 '伊尹의 意을 意으로 하고, 顔回의 學을 學으로하여, 벼슬에 나아가서는 경륜을 펴서 공덕을 세우고, 초야에 묻혀서는 그의 지조를 지켜야 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장부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깨닫고 크게 마음을 가다듬고서 실천적 학문에 뜻을 독실이 하였으며 아울러 科擧 공부를 폐기하였다.[12]

잠시나마 벼슬길에 올랐던 부친이 영면하자, 조식은 부친의 삼년상을 마치고 중종 25년(1530)에 처가가 있는 김해로 내려와 살면서 山海亭을 짓고 강학에 힘쓰게 되었다. 이 시기 이준경이 보내온 『心經』의 後記를 썼으며,[13] 宋麟壽(1487～1547)가 보내온 『大學』의 후문을 썼고,[14] 成仲慮가 보낸 『東國史略』의 발문을 쓰면서 학문의 폭을 넓혀갔다.[15] 또한 이 시기에 친분이 두텁던 郭珣(1502～1545), 成遇(1495～1546), 李霖[16](?～1546), 송인수 등이 을사사화로 화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조식이 남은 생애 동안 처사의 길을 선택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11) 김충열,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학문정신」『한국의 사상가 10인-남명 조식』, 예문서원, 2002, 50쪽
12) 『宣祖修正實錄』 6권, 5년 1월 1일 (壬申), 1번째 기사.
13) 조식, 『(국역)남명집』跋 「書李君原吉所贈心經後」, 한길사, 2001, 258~259쪽
14) 조식, 『(국역)남명집』跋 「書圭菴所贈大學冊衣下」, 한길사, 2001, 253~256쪽
15) 조식, 『(국역)남명집』跋 「題成中慮所贈東國史略後」, 한길사, 2001, 259쪽
16) 『明宗實錄』 4권, 1년 8월 5일 (丙午) 6번째 기사. "成遇와 李霖은 을사사화 때 외지로 竄配되었다가 명종1년 8월 5일 윤원형에 의해서 사론을 도발한다는 이유로 賜死되었다."

김해 시절 조식은, 자신의 학문을 넓히고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는 데 치중하고자 하였다.[17]

조식은 명종 3년(1548)에 모친상을 치른 후 외가가 있는 삼가현 토동에 돌아와 강학을 위해 雞伏堂과 雷龍亭을 짓고 학문 정진과 후학 양성에 열중하게 된다.[18]

이때는 권력과 유착한 척신들에 의해 참된 지식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언로가 막혀 백성들의 삶이 더욱 어려움에 처한 때였다. 이에 조식은 척신에 대한 비판과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명종 10년(1555) 단성현감에 제수되었을 때 올린 「乙卯辭職疏」이다. 그 내용은 조정의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써, 조식을 실천적 학자로서 평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조식은 자신과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여 상호 소통망을 형성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보은 속리산에서 조식과 徐敬德(1489～1546) · 성운 · 成悌元(1506～1559)이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이다. 조식의 나이 57세 명종 12년(1557)때 일이었다.

당시는 척신이 득세하던 시절이라, 젊고 유능한 선비들은 자신을 이끌 스승을 찾아 나섰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서로 뭉쳐, 일종의 결사와 비슷한 학파를 결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록 학풍이 다르더라도, '천지가 생물에 은택을 베풀 듯이 군주도 인정을 베풀어 민생을 북돋아야 한다.'는 신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그들은 지역을 경계 삼아 문호를 닫는 배타성을 지양하고 서로의 자아성찰과 사회염원을 확인하고 교류하면서, 상호 소통 망을 갖추어 나갔다.[19]

---

17) 이때에 權文任(1528～1580), 盧欽(1527～1602), 李濟臣(1536～1583), 鄭之麟(1520～ ?), 鄭復顯(1521～1591) 등이 내학했으며 金大有(1479～1551), 朴河淡(1479～1560), 成運(1497～1579), 申季誠(1499～1562), 李希顔(1504～1559), 李源(1501～1547) 등과 교유하였다.

18) 계부당 시절에 文益成(1526～1584), 朴承元, 林希茂(1527～1577), 吳健(1521～1574), 吳澐(1540～1617), 李光坤(1528～?), 李光友(1529～1619), 李俊民(1524～1591), 李淨(1541～1613), 鄭構(1522～?), 鄭仁弘(1535~1623), 趙宗道(1537～1597), 河應圖(1540～1610), 河沆(1538～1590) 등이 내학하였고 姜翼(1523～1567), 盧禛(1518～1578) 등과 교유하였다.

19) 이종범, 『사림열전』, 아침이슬, 2006, 26쪽

이러한 상호 소통적인 관계는 이후 사림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명종 16년(1561)에는 지리산 아래 덕산 사륜동으로 옮겨 山天齋를 짓고 자신을 더 강건하고 독실하고 빛나게 갈고 닦아 날마다 그 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산천재 시기는 문정왕후가 죽고 명종이 비로소 친정을 시작하던 때로 戚族政治의 폐단을 시정하고 사림을 등용하여 세력을 만회하려는 기미가 엿보였다. 이에 조식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임금을 뵈었는데, 명종의 생각과 조정 대신들의 경륜이 부족함을 파악하고 나서 자신의 뜻을 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곧 사직하고 귀향하였다.[20]

이후 조식은 명종에 이어 선조가 즉위하였을 때도 수차 부름을 받았으나, 상경하지 않고 이른바 「무진봉사」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에서는 척족정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나라 다스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 자신이 학문과 인격을 닦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조식은 72세가 되던 해에 일생을 마쳤다. 때는 선조 5년(1572) 음력 2월 28일이었다. 조식의 삶은 요란하지 않고 조용했지만, 가끔씩 천둥처럼 세상을 울렸다.[21]

2. 慶尙右道의 現實 비판적 學風

16세기의 조선 중기 사회는 사림들이 새로운 정치·사회적 주도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들은 서원을 기반으로 지방에 정치적 거점을 마련하고 『小學』의 수기를 학문적 토대로 하여 향촌의 질서를 확립해 나갔는데

20) 이 시기 金沔, 金宇顒(1540~1603), 金孝元(1542~1590), 郭再祐(1552~1617), 成汝信(1546~1642), 兪大修(1546~1586), 柳宗智(1546~1589), 李魯(1544~1598), 李大期(1551~1628), 李晁(1530~1580), 李天慶(1538~1610), 鄭琢(1526~1605), 鄭逑(1543~1620), 趙瑗(1544~1595), 崔永慶(1529~1590), 崔滉, 河晉寶(1530~1585) 등이 수학하였다.

21) 최석기, 『나의 남명학 읽기』, 경인문화사, 2005, 50~52쪽

이 과정에서 지방에 따라 학문적 차이가 나타나 학파가 성립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경상도에서는 남명학파와 퇴계학파가 성립된다. 남명학파의 중심지인 진주권과 퇴계학파의 중심지인 안동권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나뉜 곳으로 자연 환경과 역사적 전통의 차이에서 백성들의 기질까지 상호 대조를 이루고 있다. 右道가 토질이 비옥하고 육해산물이 풍부하여 사람들이 義를 숭상하였는데 반해 左道는 토질이 척박하고 물산이 적어서 사람들이 仁을 숭상하는 경향이 있었다.[22]

이 같은 지역적 특징은 양학파의 종장인 조식과 李滉(1501～1570)에게 잘 나타난다. 조선후기 실학자 李瀷(1681～1763)이 제시한 자료는 그 대표적인 것이다.

> 중세 이후에는 이황이 소백산 밑에서 태어났고, 조식이 두류산 동쪽에서 태어났다. 모두 경상도의 땅인데, 北道(좌도)에서는 仁을 숭상하였고 南道(우도)에서는 義를 앞세웠다. 유교의 감화와 기개를 숭상한 것이 넓은 바다와 높은 산과 같았다. 우리의 문화는 여기에서 절정에 달하였다.[23]

이익에 따르면, '지리산 아래 산청에서 태어난 조식은 우리나라에서 기개와 절조로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고, 그 후계자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 정의를 사랑하며 굽히지 않는 독립적인 지조를 지녔다.'하였고, 이에 비해 '소백산 아래 안동에서 태어난 이황은 우리나라 유학자의 태두가 되었으며, 그 후계자들은 깊이가 있고 겸손하여 洙泗의 유풍을 방불케 한다.'고 하였다. 이익은 이것이 바로 경상도의 남부와 북부가 다른 점이라는 것을 역설하였다.[24]

---

22) 정우락, 「남명 조식과 남명학파」『동방한문학회』17, 1999, 199쪽

23) 이익, 『星湖僿說』제1권 「東方人文」, "中世以後 退溪生於小白之下 南冥生於頭流之東 皆嶺南之地. 上道尙仁 下道主義 儒化氣節 如海濶山高 於是乎文明之極矣."

24) 특히 1452년 河演이 경상감사로 복무하면서 편찬한 『慶尙道地理志』 「俗尙」조에는 조식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진주, 삼가, 김해의 풍토를 적고 있어 흥미롭다. 이 지역사람들이 '강하고', '민첩하며', '무를 숭상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한데, 특히 '사납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상우도에는 밀양의 김종직을 비롯한 현풍의 金宏弼(1454～1504), 청도의 金馹孫(1464～1498), 함양의 鄭汝昌(1450～1504)등이 살았었다. 이들은 모두 조식이 존경하였던 인물들이었다.[25]

이 같은 사실은 김굉필의 사적을 적은『景賢錄』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26] 김굉필이 갈무리 해두었던 병풍에 跋文을 쓰고,[27]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정여창을 추모하는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28]

이처럼 초기 사림의 중심인물들이 활동하던 곳인 경상우도를 근거지로 삼았던 조식은 누구보다도 사림파의 학풍에 쉽게 젖어들어 들 수 있었으며 義를 숭상하는 경상우도의 기질에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5) 정우락,「남명 조식과 남명학파」『동방한문학회』17, 1999, 199쪽

26) 조식,『(국역)남명집』雜著「書景賢錄後」, 한길사, 2001, 378쪽, 각주 112 “『경현록』은 寒暄堂 金宏弼의 사적을 적은 책이다. 처음 龜巖 李損이 순천 부사로 재직할 적에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순천에 유배와 죽은 김굉필과 曺偉를 기려 景賢堂을 세우는 한편으로, 그들의 사적을 엮어『경현록』상·하권을 만들었으나, 뒤에 鄭逑가 조위의 사적을 빼고 김굉필의 사적만을 취하여 이를 증보하여『경현록』상·하 두 권을 만들었다.”

27) 조식,『(국역)남명집』跋「寒暄堂畵屛跋」, 한길사, 2001, 250～252쪽 “이 그림은 安堅이 그린 것인데, 김굉필 선생께서 불행함을 당하심에 이 한 물건만이 圖畵署에 갈무리되었다. 어느 해인지 민가로 흘러들어가 아무도 간 곳을 알지 못했다. 1570년에 김굉필의 손자 金立이 이충작에게 물었더니, ‘吳彦毅의 집에서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오언의의 손자 吳澐이 애초에 그의 처가 許元輔의 집에서 얻었던 것인데, 김립에게 주었다. 조식이 발문을 쓰며 그리워한 것은 김굉필이 성리학의 근본 목표인 ‘수기·안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인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심성수양의 수기적 躬行을 우선시하여 수기서로서의『소학』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형이상학적 성리 이론을 추구한 조선 초기 성리학의 풍토와 달리 실천을 위주로 하는 도학의 흥기에 힘썼으며 이 때문에 조식은 김굉필을 그리워했던 것이다.”

28) 조식,『(국역)남명집』雜著「遊頭流錄」, 한길사, 2001, 358쪽 “조식은 명종 13년(1558)에 지리산을 유람하던 중 정여창을 추모하며 이렇게 썼다. 도탄에서 한 마장쯤 떨어진 곳에 정여창 선생의 옛 거처가 있었다. 선생은 바로 天嶺 출신이다. 학문이 깊고 독실하여 우리 道學에 실마리를 이어주신 분이다. 처자를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었으나 나중에 內翰을 거쳐 安陰縣監으로 나아갔다가 喬桐主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곳은 삽암과 10리쯤 떨어진 곳이다. 明哲의 행 · 불행이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이 글에서 보듯이 조식은 정여창을 흠모하였는데 정여창은 정주 성리학의 이론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理氣論에서 부터 심성론과 수양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정여창은 근본적으로는 김종직이 보여준 유학의 실천 정신을 계승하여 성리학의 도학화에 힘썼다.”

3. 講學의 중심무대 智異山

경상우도라는 지역적 기질의 기저에는 경상우도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지리산이 있었다. 지리산은 예로부터 三神山[29]의 하나로 민간의 의식세계에 깊이 자리 잡아 왔으며 민중들에게 彼岸의 장을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30]

유학자들은 대개 흉금을 크게 펴 보고 시야를 확대하는 기분을 맛보기 위해, 혹은 신선세계를 찾아 억압받는 시대적 답답함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지리산을 찾았다.

지식인들은 대부분 지리산을 '智異山'으로 부르지 않고 '頭流山'이라 불렀다. 그것은 한반도 남단에 우뚝하게 솟은 지리산이 백두대간의 정기를 타고 내려와 정점을 이룬 신성한 산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대위에 김종직은 중국의 崇山인 泰山보다 두류산이 더 낫다는 인식을 가졌고,[31] 柳夢寅(1559～1623)은 지리산을 동아시아 문학의 최고봉인 詩에서의 杜甫(712～770), 散文에서의 司馬遷(85～145)에 비유하였던 것이다.[32]

또한, 조선시대 도가적 성향을 지닌 지식인들을 기록한 洪萬宗(1643～1725)의 『海東異蹟』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지리산을 중요한 정신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3]

---

29) 三神山은 중국의 『사기』에 나오는 신선이 살고 있다는 산, 즉 발해만 동쪽에 있은 蓬萊, 方丈, 瀛州삼산인데 여기에는 신선이 살고 있고 불사약이 있다하여 진시황이 이것을 구하려고 동남동녀를 보냈다는 전설이 있다. 蓬萊山은 금강산, 方丈山은 지리산, 瀛洲山은 한라산을 가리킨다. 『한국민속대사전』민족 문화사 참조

30) 이이화, 「지리산의 정신사와 저항사」『한길역사 기행』1, 한길사, 1986, 33~36쪽

31) 김종직 『佔畢齊集』권8 「遊頭流錄」 아, 두류산은 숭고하도도 빼어나다. 중국에 있었다면 반드시 숭산이나 태산보다 먼저 천자가 올라가 봉선을 하고 옥첩의 글을 봉하여 상제에게 올렸을 것이다.

32) 최석기, 『남명과 지리산』, 경인문화사, 2005, 18~22쪽

33) 신병주, 「16세기 남명 조식의 학풍과 현실인식」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7, 33~34쪽; "지리산을 중요한 정신적 배경으로 하였던 지식인들로는 權眞人 · 金時習 · 洪裕孫 · 鄭鵬 · 鄭壽昆 · 鄭希良 · 南趎 · 智異仙人 · 徐敬德 · 정렴 · 鄭碏 · 鄭礎 · 田禹治 · 尹君平 · 漢拏仙人 · 南師古 · 朴枝華 · 李之菡 · 寒溪老僧 · 柳亨進 · 韓無畏 · 張漢雄 · 南海仙人 · 蔣生 · 郭再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동걸 · 한영우 · 박찬승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上, 창작과

이처럼 지리산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 우리 강토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산이었기에 두류산을 유람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문인·학자들이 이 산을 유람하여 수십 편의 유람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조식 또한 만년에 천왕봉 아래 山天齋를 짓고 살면서 지리산을 10여 번이나 올랐다. 그는 산을 오를 때마다 지리산을 통해 역사와 현실을 보았고 사물을 접할 때 마다 자아를 성찰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보았다.

그래서 그의 지리산 등정은 일종의 구도여행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여행을 통해 道를 피상적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돌이켜 자득하려 했고, 그 자득한 도를 자기 몸으로 직접 실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식은 지리산을 시의 주요한 무대로 삼고 있는데 다음의 시에는 지리산의 웅장함을 칭송하고 자신을 견주어 보는 조식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34]

천 섬을 담을 수 있는 큰 종을 보소서!	請看千石鍾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없다오.	非大扣無聲
어떻게 하면 두류산처럼,	爭似頭流山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을 수 있을까?[35]	天鳴猶不鳴

이 시에서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 없다오'라는 구절은 『禮記』「學記篇」에, '질문에 잘 답하는 것은 종을 치는 일과 같다. 작게 치면 작게 울리고, 크게 치면 크게 울린다.'라는 말로써 세상이 조식 자신을 알아주어 크게 쓰면, 큰 일을 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조식은 자신의 길라잡이로 지리산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리산은 조식의 문인들이 의병운동이나 정치활동에서 적극적이

비평사, 2001, 220~221쪽 참조

34) 신병주, 「16세기 남명 조식의 학풍과 현실인식」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7, 34쪽 각주100 인용

35) 조식, 『(국역)남명집』詩 「題德山溪亭柱」, 한길사, 2001, 60~61쪽

고 급진적인 측면을 보인 것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지리산은 이후에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변혁 저항세력의 중심무대의 역할을 하였다.

Ⅲ. 조식의 學問과 出處觀

1. 老・佛・陽明學의 이해와 비판

16세기 전반기는 15세기보다 성리학이 훨씬 발전되는 시기로써, 주자성리학이 정착해 가는 과정이었으며, 老・佛・양명학 등의 사상이 다양하게 내포되었던 시기였다.

사상의 다양성은 주자성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문적 깊이나 순수성에 있어서 뒤떨어진 것으로 비판되며 심지어는 이단으로까지 배척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자성리학의 관점에서일 뿐, 당시로서는 성리학을 비롯한 모든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어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고조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자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老・佛・陽明學등 모든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풍이 유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학풍중 하나가 조식의 학풍이다.

조식은 규범을 중시하는 유가철학이 정신세계의 거대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유 능력에 아무런 규범을 두지 않는 노장사상을 수용하였는데 이를 극대화시켜 비판하는 사람들은 조식이 도가철학에 편향된 취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조식이 노장사상을 수용한 것은 정신세계의 거대 지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가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점은 다음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6]

불 속에서 하얀 칼날 뽑아내니, 离宮抽太白

---

36) “조식의 노장사상 수용은 정신적 거대 지향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송항룡, 「노장철학의 이해와 그 가치」『유승국박사회갑기념 논문집』, 1983에서는 보고 있다.

서리 같은 칼 빛 광한전까지 닿아 흐르네. 霜拍廣寒流
견우성 · 북두성 떠 있는 넓디넓은 하늘에, 牛斗恢恢地
정신은 놀아도 칼날은 놀지 않는다네.[37] 神游刃不游

이 시는 『莊子』「養生主」에 나오는 것으로 조식이 진사시에 장원한 문인 趙瑗(1544~1595)에게 선물한 檢柄에 써서 준 것이다. 조식이 장원한 조원에게 현실과는 상관없이 도가적 정신세계를 지니라는 의도에서 이 시를 써 주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시의 의미는 포정이 칼날을 자유자재로 놀렸듯이, 정신을 자유자재로 놀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며, 현실 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利祿을 벗어나 무한히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조식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처럼 조식은 정신적 거대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노장적 사고방식을 수용하였고 산천재에 隱居하면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도 노장적 은둔이 아니라, 왕도정치를 실현할 만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38]

조식은 불교의 이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비판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명종 10년(1555)에 올린 상소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佛氏의 이른바 眞定이란 것은 다만 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일 뿐이니 위로 천리를 통달하는데 있어서 유교와 불교가 한가지입니다. 다만 인사를 행하는 데 있어 다리가 없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가에서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미 불교를 좋아하시니 그것을 학문하는 데로 옮기시면 이것은 우리 유가의 일입니다.[39]

위 상소에서 불교가 '上達天理'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人事

37) 조식, 『(국역)南冥集』「書劍柄」, 한길사, 2001, 53쪽
38) 이상필, 「남명 사상의 특징」『한국의 사상가 10인-남명조식』, 예문서원, 2002, 161~162쪽
39) 조식, 『(국역)南冥集』「乙卯辭職疏」, 한길사, 2001, 317쪽

를 행하는 것에서 얻는 교훈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를 성리학과 같이 마음을 보존하는 사상으로 보고 이에 주목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40]

또한 그는 승려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學僧들과 어느 정도 교분을 가졌으며,[41] 때로는 승려를 서신 전달의 인편으로 이용하기도 하였고,[42] 두류산 유람 시에는 많은 부분에서 승려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43] 한편 사찰에서 느낀 여러 감정을 표현한 시에서 궁핍한 사찰의 살림과 곤궁한 승려의 삶을 표현하기도 하였다.[44]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조식은 승려도 백성의 한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올바른 정치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결론적으로 그의 불교관은 성리학자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잘못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칠 수 없는 處士의 입장에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45]

이 시기에 조식은 양명학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되는데, 『光海君 日記』에 언급된 '植嶺南人也……學問稍涉陽明'라는 대목은 조식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명종・선조 연간에 南彦經과 더불어 대표적인 양명학자인 李瑤[46]와 조식이 주고 받은 두 차례의 서신이 『남명집』「사우록」에 남아 있는 데, 이 가운데 선조 4년(1571)에 조식이 보낸 서신에는 '오직 배운 바를 변치 마시고 인간의 大道를 우뚝한 모습으로 걸어서, 넓은 城으로 들어가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양명학에 보여준 관심의 정도를 유추할 수 있다.[47]

---

40) 신병주, 「16세기 남명 조식의 학풍과 현실인식」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7, 43쪽
41) 조식, 『(국역)南冥集』詩 「贈山人惟政」, 한길사, 2001, 68~69쪽
42) 조식, 『(국역)南冥集』書 「答成聽松書又」, 한길사, 2001, 205~206쪽
43) 조식, 『(국역)南冥集』詩 「別敬溫師」, 한길사, 2001, 54~55쪽
44) 조식, 『(국역)南冥集』詩 「山寺偶吟」, 한길사, 2001, 74~75쪽
45) 김경수, 「남명의 불교관」 『한국의 사상가 10인-남명조식』, 예문서원, 2002, 549쪽
46) 『宣祖實錄』권53, 27년 7월 17일 甲午, 1번째 기사. "慶安令 이요가 상을 인견하고 심학에 대한 일등을 아뢰다."

서신 왕래를 할 만큼 이요의 학문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만큼 개방적이었던 조식의 학풍이 양명학의 영역까지 아울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양명학에 대해 보여준 이와 같은 호의성으로 인해 조식 학문의 실천성을 양명학이 지향하는 '知行一致', '良知'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하나, 조식이 중시하는 실천성은 성리학을 철저히 下學・人事의 논리로 보는 학문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48]

후대로 가면서 성리학자로서의 조식의 모습이 퇴색되고 그의 학문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노장적 기풍이나 양명학적 성향이 지나치게 부각되었는데 이는 조선중기 이후 주자성리학의 흐름이 주류가 되고, 정치적으로 조식의 문인들이 도태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49]

조식은 성리학에 대한 맹목적인 천착보다는 程朱의 학문적 요체를 밝혀 실천에 힘쓰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든 학문을 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조식의 학문에 나타난 老・佛 및 陽明學을 이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2. '敬 · 義' 중심의 實踐 學問

조식은 현실에 도움을 주는 사상이라면 어떤 사상이든 포용하려는 입장을 보였으며, 성리학 자체에 있어서도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경향의 학풍을 중시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유정난을 시작으로 단종복위 사건 등을 거치면서 훈구 공신들이 양산되고 토지소유의 집중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지배층의 부패와 착취 및 사치가 극에 달하여 민생과 민의

47) 조식, 『(국역)南冥集』「答慶安令守夫書」, 한길사, 2001, 188쪽
48) 고석규, 「정인홍의 의병활동과 산림기반」『한국학보』51, 1988, 47쪽
49) 신병주, 「16세기 남명 조식의 학풍과 현실인식」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7, 44~45쪽

가 유리된 정치·경제적 구조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유교적 통치이념이 퇴색된 정치·경제적 구조 속에서 사림들은 수기를 강조했고, 나아가 개인의 도덕적 실천능력을 함양한 사람들이 실제의 정치도 담당해야 한다는 유교 본래의 논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림들의 주장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척신세력들의 반격으로 인하여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만 이들의 주장은 소장 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경상우도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소장 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조식은 修己治人을 단편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수기는 치인을 위한 기초이고 치인을 위해서는 군주와 신하사이의 상호 신뢰라는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또한 제왕학에 있어서는 보편적 원리보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융통성을 보일 것을 주장하였다.[50]

이러한 수기치인의 기초는 조식 사상의 핵심인 '敬 · 義'로 표현된다.

조식은 공부하는 가운데 항상 조용히 깨닫고자 하여 '惺惺子'라는 방울을 옷에 달고 다녔는데, 마음을 항상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마음이 깨어 있지 않으면 바로 혼몽한 경지로 빠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이고 마음의 움직임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엄히 살피는 것이 필요한 데 이때의 척도가 바로 '의'인 것이다.

'경'과 '의'의 관계를 두고 이전의 학자들은 '경'속에서 '의'가 자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의'를 '경'에 포함시켜 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조식은 '경·의'를 구분해 공부의 두 축으로 내세움으로써 '경'에 부속된 것으로만 보았던 '의'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또한 조식은 "안의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은 '경'이고, 밖의 일을 결단하는 것은 '의'이다"[51] 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 敬義劍이라는 칼을 지니고 다녔고, 창벽 사이에도 '경·의' 두 글자를 크게 써 놓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경'과 '의'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다.[52]

---

50) 박병련, 「남명조식의 정치사상과 사상사적 위치」『정신문화연구』통권68호, 1997, 64~69쪽
51) 조식, 『(국역)南冥集』「佩劍銘」, 한길사, 2001, 104쪽

‘경’이 유지되는 가운데 ‘의’의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인식하고자 한 것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다.

그는 일을 행하고 대상을 접할 때도 ‘의’를 중시하였는데, 그것은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한 점의 사욕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데 기인한 것이었다.

「냇물에 목욕하고서」라는 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십 년 동안 더럽혀진 온 몸	全身四十年前累
천 섬 되는 맑은 못에 모두 씻어 보낸다.	千斛淸淵洗盡休
만약 티끌이 오장에서 생긴다면	塵土倘能生五內
지금 당장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띄워 보내리.[53]	直今刳腹付歸流

조식은 자신의 마음속을 깨끗이 하여 한 점의 티끌이 마음을 더럽힌다면 당장 배를 갈라 씻어낼 각오를 할 정도로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정신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실천적 수양을 하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경・의’를 통한 實踐躬行을 근본으로 삼았던 조식은 외적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공부만 하는 선비를 두고 “세상을 속이고 명목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이름을 올리려는 마음이 아닌가.”하면서 비판하기도 하였다.[54]

조식의 실천적 학풍은 18세기 실학자 이익의 주목을 받았으며, 19세기 초에 활약한 호남의 실학자 河百源(1781～1845)[55] 역시 조식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익과 하백원이 실학자로 알려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식의 사상이 후대 실학자들의 논리에 일정한 기반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56]

---

52) 『남명별집』권2「언행총록」
53) 조식, 『(국역)南冥集』「浴川」, 한길사, 2001, 104쪽
54) 이종범, 사림열전, 아침이슬, 2006, 184쪽
55) 이종범, 「조선후기 同福지방 晉陽 河 氏 家의 學問과 傳承」『호남사학회』, 2005, 15쪽 “하백원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출생으로 이용후생적 학문경향을 가졌던 19세기 초의 실학자이다. 수차와 지도 제작에 공헌했다.” (『圭南集』민창문화사 해제 참조)
56) 최근 실학 연구의 한 경향은 남명학파나 화담학파에게서 현저한 절충적, 개방적인 사상의 흐름을 실학의 한 조류로 파악하고 있다. (한영우 외,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6 참조)

조식에게 '경・의' 사상은 성인의 경지를 추구하는 삶의 기준이었고 실천적 성리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서 '경・의'의 학문이 지니는 역사성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조식을 전형적인 성리학자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57]

그러나 조선 중・후기의 역사 전개와 맞물려 퇴계의 학문이 지배층의 지지를 획득한 것과는 달리 정치영역의 독자적 논리를 긍정하며 민생과 국가를 위해 기존의 학문 구조와 정치 구조가 개혁 되어야 한다는 조식의 실천적 학풍은 사림을 포함한 지배집단에게 수용되기 어려웠던 것이다.[58]

또한 조식의 학풍이 광해군 시기를 지나면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現實認識과 出處觀

'경・의'로 대표되는 실천학문을 통하여 선비로서 성인의 경지에 이르면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조식이 그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기 위해 어떤 출처관을 가지고 현실을 파악하였는지 살펴보면, 功業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문장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經・史・子의 글을 폭넓게 섭렵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계속하였지만, 송대의 理學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는 없었다.

이러한 조식은 문과에 낙방한 이후 자신의 문장에 대한 반성을 하고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평이하고 실용적인 문장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때 비로소 『性理大全』을 구하여 읽게 되었는데, 이는 문장을 통하여 拔身하려는 자기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59]

조식은 『성리대전』을 탐독하다가 허노재가 말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57) 신병주, 「16세기 남명 조식의 학풍과 현실인식」 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7, 35쪽
58) 박병련, 「남명 조식의 정치사상과 사상사적 위치」 『정신문화연구』통권68호, 1997, 172쪽
59) 최석기, 「남명의 성학과정과 학문정신」 『남명학연구』창간호, 1991, 67쪽

되었다.

> 伊尹의 意을 意으로 하고, 顔回의 學을 學으로 하여, 벼슬에 나아가서는 경륜을 펴서 공덕을 세우고, 초야에 묻혀서는 그의 지조를 지켜야 한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벼슬에 나아가서도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고, 산림에 처하면서도 지키는 바가 없다면 뜻을 세우고 학문을 닦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60]

허노제의 이 말에서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던 그는 향촌에서 은거하여 세상에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항상 왕도정치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였다.[61]

또한 친구 이준경이 보내준 『심경』을 읽고 "안회처럼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발문을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식은 이윤과 안회의 출처를 군자의 큰 절개로 삼았고, 고금의 인물을 논할 적에 먼저 출처를 살핀 뒤에 그 사람이 행한 일의 是是非非를 논하였다.

다음 세편의 시는 출처에 대한 조식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절은 부서지고 중은 파리하여 산은 옛과 같지 않네.	寺破僧羸山不古,
앞의 왕조 임금은 집안단속을 잘 하지 못하였네.	前王自是未堪家.
조물주가 지조 지키는 매화의 일을 그르쳤으니,	化工正誤寒梅事,
어제도 꽃피우고 오늘도 또 꽃을 피웠구나.[62]	昨日開花今日花.

60) 조식, 『(국역)南冥集』, 한길사, 2001, 35쪽

61) 조식, 『(국역)南冥集』 記, 한길사, 2001, 237~244쪽 "조식의 왕도정치에 대한 생각은 「杏壇記」와 「陋巷記」에 잘 나타나 있다. 杏壇은 본래 춘추시대 노나라 대장부 藏文仲이 제후들과 회맹하기 위해 쌓은 단인데, 후대 공자가 이곳에서 강의를 하였다. 이 「행단기」의 요지는 장문중이 행한 것과 같은 패도가 아니라 공자가 추구한 왕도를 회복하고자 한 데 있다. 그래서 조식은 이 글을 안회가 기록한 형식을 취하였다. 이를 두고 보건데, 조식은 현실세계에 왕도를 펼 수는 없지만, 안회처럼 도를 간직하기를 자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또 「누항기」를 지었다. 이 「누항기」는 안회가 졸한 뒤 공자가 제자들과 그가 살던 누항을 지나며 탄식한 것을 소재로 曾參이 안회에 대해 기록한 글이다. 조식은 안회의 영토와 지위를 천자와 견주어 논하면서, 안회의 영토가 천자의 영토보다 넓고, 안회의 지위가 천자의 지위보다 크다고 하였다. 정치적 권력보다 道를 더 중시하는 사고가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구왕조인 고려에서 벼슬을 하고 또 신왕조인 조선에서도 벼슬을 한 姜淮伯의 출처를 비판한 시이다.[63] 산이 예전 같지 아니함은 쇠락한 왕조의 망함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고, 강회백이 단속사에 심었던 매화가 조물주의 섭리마저 지키지 않고 어제도 꽃을 피우고 오늘도 꽃을 피운 것은 북풍한설에만 피어나는 매화의 지조와는 어긋나는 일이며, 매화의 孤節은 출처의 大節과 그 의미가 중첩되는데 이는 절개를 지키지 못한 강회백의 출처를 효과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또한 『아무렇게나 지어』라는 시를 통하여 당시의 시대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취하고 버리는 사람의 인정은 족히 나무랄 것 없지만	取舍人情不足誅
어찌 구름마저 그처럼 아첨할 줄 알았으랴?	寧知雲亦獻深諛
먼저는 갠 날 앞 다투어 남쪽으로 내려가더니,	先乘霽日爭南下
흐린 날은 다투어 재빨리 북쪽으로 내달려가네.[64]	却向陰時競北趨

여기에서 나온 取捨는 곧 선비를 쓰고 버리는 것을 뜻하고, 구름은 하늘을 휘저어 아첨하는 간신이나 혹은 어지러운 세태를 뜻하는 것으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구름과 같이 한껏 허명과 인욕을 쫓는 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구름낀 볕늬도 없건마는…'하는 옛시조와 그 맥이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렇게나 지어'라고 이름붙인 이 시에서 조식은 세상인심의 천박하고 경솔함을 구름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또한 『詠梨』라는 시를 통하여 생명의 보존과 출처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

62) 조식, 『(국역)南冥集』「斷俗寺政堂梅」, 한길사, 2001, 83쪽

63) 강회백(1357~1402) : 고려조 공양왕 때 世子傅 밀직사 사대사헌 정당문학을 지내고, 조선 태조때 동북면 도순 문사를 지냈다. 그는 젊어서 지금의 산청군 단성면 운리에 있는 단속사에서 공부를 했다. 이때 매화를 심었는데, 후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당문학의 벼슬을 하였으므로 이 매화를 '정당매'라 한다.

64) 조식, 『(국역)南冥集』「謾成」, 한길사, 2001, 104쪽

시원찮은 배나무가 문 앞에 서 있는데,	支離梨樹立門前
열매는 쉬어 빠져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다.	子實辛酸齒未穿
너도 주인과 더불어 버려진 물건이지만	渠與主人同棄物
오히려 쓸모가 없기에 제 목숨을 부지하는구나.[65]	猶將樗櫟保天年

문 앞에 서 있는 볼품없는 배나무를 두고 읊은 시로, 마치 집주인인 자신과 배나무의 처지가 같음을 비유하여 온전한 쓰임에 대한 警戒, 곧 天壽의 보전을 갈파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한낱 소용없는 물건으로 묘사된 굽은 배나무는 世人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기에 오히려 제 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조식도 산림에 은둔하여 입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비에 휩쓸리지 않고 성명을 보존하고 대절을 지키며 살 수 있었다.

이 시는 얼핏 『莊子』'山木'에 보이는 寓意를 끌어온 듯하지만, 평생을 처사로 마친 조식의 삶이 그러했듯이 먹줄을 받지 않는 굽은 배나무처럼 선비는 모름지기 성명을 보존하고 출처의 대절을 지킬 수 있어야함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66]

그러나 조식은 성명을 보존하고 출처의 대절을 지키면서도 국가의 부름이 있거나 시국이 어지러울 때에는 스스로 상소를 올려 시국의 난맥상을 타개하는 방법을 역설하였는데 이러한 상소가 조선 사회 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명종 10년(1555)에 올린 「을묘사직소」에서 문정왕후의 전횡과 척신정치의 폐단을 통렬히 지적했을 때, 史臣들은 조식의 주장을 변호하였고,[67] 선조 1년

65) 조식, 『(국역)南冥集』「詠梨」, 한길사, 2001, 110쪽

66) 이상원, 「남명 한시의 미학」『남명학연구론집』9, 2001, 319~321쪽

67) 『明宗實錄』권19, 10년 11월 庚戌, "사신은 논한다. 조식은 오늘날 遺逸중에서 가장 어진 사람이다. 재능이 뛰어나고 행실이 깨끗하며, 또 학식도 있다. 초야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나 榮利를 생각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불렀지만 나오지 않고 그 뜻을 고상하게 하였다. 비록 수령으로 임명되는 영광에 부임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곧은 말로 疏를 올려 당시의 폐단을 바로 지적하였으니, 이 어찌 君臣의 의리를 모르는 사람이겠는가. '자전은 깊숙한 궁중의 한 과부이다.'고 한 말은, 조식이 새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先賢의 말을 인용하여 글을 지은 것이니, 이것이 어찌 공손하지 못한 말이겠는가. 포상하여 장려하지는 않고 譴責하기

(1568)「무진봉사」에서 피력한 서리망국론은 국가정책의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었다.[68] 이는 조식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엿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아울러 처사의 입지를 끝까지 지키면서도 현실정치에서 지속된 그의 영향력은 이후 조선사회에서 산림이 등장하는 하나의 바탕이 되었다.

조선중기의 산림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宋時烈(1607~1689)과 許穆(1595~1682)이 조식의 神道碑文을 찬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조식이 가졌던 이와 같은 출처론은 16세기에 새롭게 대두한 것으로서 '일의 마땅함'을 내세우는 것은 출처론적 군신윤리라 할 수 있다. 군신윤리적 출처관은 신하가 관직에 나아가는 것과 나아가지 않는 것은 임금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출처에는 임금의 명령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준이 있다. 즉 의리가 그 기준이다. 출처의 마땅함에 비추어서 나아갈 수 있는지 나아갈 수 없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의리이며 임금을 섬기는 도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출처를 둘러싸고 명분론적 출처관과 군신윤리론적 출처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고 조식의 경우는 군신윤리적 출처관을 자임하였기 때문에 조식이 명종을 뵙고 내려온 것이다.[69]

또한 조식은 출처를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친 문제라고 보았다.

를 매우 엄중히 하였는데, 이것은 보필하고 인도하는 사람 중에 적합한 자가없어 학문이 넓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후생략)

68) 숙종, 영조, 정조, 고종 대에 이르기까지 서리들로 인한 폐단이 거론될 때마다 조식의 '서리망국론'이 대두되었다

69) 김훈식, 「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역사와 현실』50, 2003, 433~434쪽 "16세기 출처론적 군신윤리에서는 군주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는 내용이 빠지고 그 대신 군신 사이는 의리를 실천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명분론적 군신윤리에 비해 출처론적 군신윤리에서 '君臣義合'이라는 주자학적 명제가 더욱 철저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는 출처론적 군신윤리가 정착하는 시기에 군신 사이에도 '友道'가 있음을 강조하는 논의가 대두하였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교에서 붕우는 함께 의리를 실천하는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신관계가 함께 의리를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면 자연히 군신관계와 붕우관계의 공통점이 드러나게 된다. 中宗朝에 조광조 일파가 정계를 주도할 때 그들은 군신 사이에도 '우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그 후에도 이황이나 성혼의 글 속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선중기 조식의 올바른 현실 인식과 출처는 정치가 부패하고 윤리가 타락된 세상을 맑게 하였고, 지식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모범적 사례라 하겠다.

Ⅳ. 조식의 活動과 役割

1. 乙卯辭職疏

지금까지 조식의 학문 형성 배경과 다양한 사상의 수용 및 출처관이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에 지향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 문제 해결에 학문의 지향점을 둔 조식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명종대 초기에는 을사사화와 계속되는 被禍로 三司의 諫諍權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삼사는 척신의 반대세력 제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70] 윤원형의 집권체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일파가 삼사에 활동하며 言論을 주도하였고, 문정왕후를 비롯한 명종과 척신들은 언관의 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언론이 이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었다.[71] 이때 조식은 명종 10년(1555)「을묘사직소」를 통하여 당시 조정의 부패상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 "전하의 나라 다스리는 일이 잘못되어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해가고 天意가 벌써 떠났으며 인심도 이미 이반되었습니다. 비유컨대 백년 된 큰

70) "척신들의 반대세력 제거에 도움을 준 것은 陳復昌이 척신 세도가였던 少尹 尹元衡의 심복이 되어 명종 즉위년(1545) 을사사화 때 大尹에 속한 사림의 숙청에 크게 활약,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자 史官들로부터 '毒蛇'로 기록되었다. 명종 5년(1550)에는 자기를 추천하여 준 具壽聃(1500~1550)까지 역적으로 몰아 賜死하게 하는 등 윤원형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장서 옥사를 일으켜 제거하자 '極賊'이라는 혹평을 들었다. 대사헌을 거쳐 명종 15년(1560) 공조참판에 올랐으나 윤원형으로부터 간교, 음험한 인물로 배척, 파직되어 三水에 유배되었다. 李無疆은 중종 17년(1522) 진사시에 합격하고 중종 31년(1536) 별시 문과에 3등으로 급제하였다. 그 뒤 正言·掌令 등을 거쳐 명종 3년(1548) 사성으로 함경도 어사로 나가 흉년에 대한 救荒 실태를 살폈다. 또 이기 · 李洪男의 사주를 받아 李致 · 李瀣 · 崔昌孫 등을 무고해 杖死하게 하였다. 이듬해 평안도 어사로 다녀와서 직제학이 되었다가 예천의 문서 부정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명종 15년(1560) 진복창이 제거되자 허자 · 송순 · 이준경 등을 모함한 사실이 탄로나 함경도 경원에 귀양 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등의 일들이 해당된다." (이재희,『조선 명종대 '척신정치'의 전개와 그 성격』『한국사론』29, 1996, 99쪽 참조)

71)『明宗實錄』권5, 2년 5월 戊寅, "문정왕후 발언이 대표적인 것이다."

나무가 그 속은 벌레가 다 파먹었고 기름과 진액도 다 말랐는데 회오리바람과 폭우가 언제 닥쳐올지를 알지 못하는데 이른 지가 아득히 오래 되었습니다."[72]

유교국가에서 민심이 떠나고 天意가 옮겨졌다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혁명을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孟子 이래로 수용되어온 역성혁명관에 동의를 표하면서 당시 민중이 魚肉이 된 현실을 直裁하고 정치행위의 근본인 민중의 호응과 지지를 잃은 정권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조식이 역성혁명관에 동의를 표한 것은 16세기의 정치전개 양상이 변화하고 있었으며, 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君·臣 權力關係의 變化가 그것이다. 군·신 권력관계의 변화란 군주가 修身을 게을리하여 성리학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反正을 통해 언제라도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성이 전제가 된 왕권이 관료와의 관계에서 상호 균형 및 견제의 상대적 관계로 자리매김 된 것이다.[73] 하지만 척신들의 발호로 상대적 관계가 흔들리고 언로가 막히자 조식은 상소를 통해 선비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 것이다.

조식의 상소에 나타난 또 하나의 논지는 內治의 문란, 즉 국가 안의 부패가 국력을 약화시켜 밖으로부터 화를 자초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부패상을 조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고 뜻이 있는 신하와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는 선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형세가 이미 극도로 부패해져서 둘러보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있음을 알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小官들은 아래서 히히덕거리며 주색이나 즐기고 大官은 위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오직 재물과 뇌물을 모으기만 합니다. 內臣이 그들을 후원

72) 조식, 『(국역)南冥集』「乙卯辭職疏」, 한길사, 2001, 311~318쪽
73) 김돈, 「16세기 전반 정치권력의 변동과 유생층의 공론 형성」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7쪽

하는 세력 심기는 용을 못에 몰아넣는 것과 같고 外臣이 민중의 껍질을 벗기기를 이리가 들판에 날 뛰듯 하는데, 가죽이 다 해어지면 털도 붙어 있을 데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중략) 자전은 소식이 막혀있는 깊은 궁궐의 일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는 나이가 어리어 선왕의 대를 이은 외로운 아들일 뿐이니, 백 천 가지 天災와 억만 갈래로 흩어진 인심을 무엇으로 수습할 것입니까?"[74]

이는 당시 국왕의 배후에서 실권을 행사한 문정왕후를 정점으로 한 內外의 대소신료들을 무차별로 비판한 것인데, 민중을 못살게 굴어 민심이 이반되어 버리면 그 민중에 붙어 기생하는 왕이나 관리들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왕과 대비에 대한 호칭을 '孤兒'나 '과부'라고 칭했다는 점은 不敬君上罪로 몰릴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宋代의 歐陽修(1007~1072)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사형에 처해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식이 문정왕후에 대하여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한 것은 선교 양종과 禪科를 복설한 일, 내시에게 堂上印을 만들어준 일 등 일련의 정치행위는 비록 수렴첨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왕비의 월권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행위에서 손을 떼라는 준엄한 경고였으며, 이를 수수방관한 명종의 처사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보았던 것이다.[75]

또한 왕과 수렴청정한 대비가 정치를 못하여 백성의 가죽이 벗겨지는 상황이라면, 군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기에 조식이 면책을 위해 구차한 변명을 나열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당시 유교적 통치이념은 근본적으로 수기 이후에 치인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상·하 계급이 더불어 잘 살도록 하는 데 있었지만, 당시의 성리학자들은 理氣心性 일변도의 학문경향에 치우쳐 현실

74) 조식, 『(국역)南冥集』「乙卯辭職疏」, 한길사, 2001, 311~318쪽
75) 禪敎 兩宗과 禪科를 復設한 일은 『明宗實錄』권10, 5년 12월 庚戌에 나타나며, 內侍에게 堂上印을 만들어준 일은 『明宗實錄』권10, 5년 12월 庚午에 기록되어 있다.

의 사회적인 모순을 외면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한편 국제정세에 있어서 조선은 명나라와 조공관계에 충실하였고, 북방의 여진족과 일본에 대해서는 四郡六津開拓과 대마도 정벌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대처로 얼마 동안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종시대 이후로부터 줄곧 변방에서 크고 작은 小搖가 일어나 평화가 오래가지는 못하였다.[76]

왜구들의 침탈이 잦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조식은 「을묘사직소」를 통해 외교와 국방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당시 조선이 처한 부정적 상황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 대처방안을 논하고자 하였다.[77]

다음의 글은 조식의 국방과 외교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평소의 조정에서 재물로 사람을 쓰니 재물은 모이겠지만 백성은 흩어져서 필경에는 장수로 쓸 만한 사람이 없고 성에는 군졸이 없습니다. 적이 침입하여도 無人지경이 되었으니 어찌 이것이 괴이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역시 대마도의 왜구와 국가 관리가 몰래 결탁하여 그 앞잡이가 되어 하는 바가 국가의 무궁한 치욕이 되어 왕령이 떨치지 못하니 마치 국가의 한 모퉁이가 무너지듯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옛 신하를 대우하는 것은 주나라 예법보다 엄하면서 왜구를 대우하는 것은 망한 송나라 보다 더한 셈입니다."[78]

이 글에서 조식은 당시 野人과 倭의 국경침입과 변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왜구를 견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丁未約條와 같은 和議를 통하여 왜구에게 많은 기회를 준 것을 심각한 상황으로 보았던 것이다.[79]

---

76) 이 시기 크고 작은 소요는 중종 5년(1510)에 일어난 삼포왜란과 명종 10년(1555)에 발생한 을묘왜변을 말한다.

77) 외교와 국방에 있어서의 역사적 사실은 세종 1년(1419)에 대마도를 정벌하고 성종 10년(1479)에 북방 야인들을 쳐서 변방을 튼튼히 한 것을 말한다.

78) 조식, 『(국역)南冥集』「乙卯辭職疏」, 한길사, 2001, 311~318쪽

더구나 그가 남해안의 김해에서 18년간 거주하며 왜구의 노략질과 척신들이 왜구와 결탁하여 무역에도 관여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척신들의 무역은 단순히 자신들이 사용할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국가권력의 사적이용으로 민중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참상을 목도한 조식은 이를 바탕으로 『을묘사직소』를 올렸기에 상소문이 더욱 절실한 감이 있다.

조식은 조정이 이러한 대・내외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방관하면 민심의 이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심의 이반은 곧 국방문제로 직결되는 바, 권력 상층에서 시작된 부정부패와 혼란상이 국가 존재의 기반을 근본부터 흔들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보았던 것이다.

조식의 상소는 당시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면서 강력한 국가 방어책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학문과 기술을 갖춰야 內憂外患을 막을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식의 견해는 후세 실학자들에게 有・無형으로 전승되어 그들의 학문과 현실인식 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조식은 단순한 상소로만 현실 문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목으로 왜변을 예측하고 제자들에게 그 대책을 강구하는 시험문제도 출제하였다.[80]이러한 결과 임진왜란 때 그의 直系・傍系 문하에서 수학한 제자들 가운데 50여명의 의병장이 활약했다는 것은 조식의 학문의 실천성을 잘 보여준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방 외교론이 사회현실에 바탕을 둔, 실학의 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81]

---

79) 중종 39년(1544) 왜인들의 약탈로 야기된 蛇梁鎭倭變으로 조선에서는 그들의 내왕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對馬島主의 사죄와 通交 재개 허용을 바라는 간청을 받아들여 명종 2년(1547) 丁未約條를 맺고 왜인들의 내왕 통교를 허용하였다.

80) 조식, 『(국역)南冥集』「策問題」, 한길사, 2001, 349~352쪽

81) 권인호, 「남명의 경세사상 연구」『남명학연구논총』2, 1992, 26~30쪽 “이러한 모습이 율곡의 ‘십만양병설’ 보다도 더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율곡의 주장은 과연 그가 말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이 말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 편집된 「栗谷行狀」에만 보이며, 율곡은 당시의 임금 선조와의 이야기와 강의 내용을 「經筵日記」로 남겼는데 이곳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후세에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預養兵」에서 십만의 군사를 양병하게 되었을 때 국가재

조식은 선비로써 백성의 쪽에 서서 치자를 비판하고 淸議를 일으키는 것이 본연의 직능이라고 생각하였다. 선비는 국가 속에서 局外者의 안목과 주체적 입장에서 의리적인 가치 기준으로 항상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을 제시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선비가 國恩과 民勞에 보답하는 길임을 강조하였던 것이다.[82]

조식의 이러한 상소는 사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사림들에게 희망의 모습을 보였지만, 현실인식에 무감각 했던 명종과 문정왕후를 비롯한 척신들은 자신들을 위한 권력기반을 견고히 구축하면서 사적인 이익 추구에만 전념하여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속리산 遊山

조식이 사림의 중심 인물 중 한명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은 문정왕후를 비롯한 척신들의 전횡과 국왕의 직무유기로 국가 시스템의 붕괴위기를 초래하고 있었던 시기로 뜻있는 젊은 선비들은 덕이 갖추어진 명망 있는 스승을 찾아 나섰고, 서로 뭉쳐 일종의 結社와 비슷한 학파를 결성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호 소통망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호 소통망 형성의 대표적인 것이 보은 속리산에서 조식과 서경덕 · 성운 · 성제원이 만남의 자리를 가졌던 것이다.[83]

李肯翊(1736～1806)이 쓴『燃藜室記述』의 성제원에 관한 기록을 보면,

> 성운이 속리산에 은거하면서 거문고와 책으로 스스로 즐겼다. 조식이

정과 국방비 부담과 군역 때문에 오는 민중의 고통을 말하고 그 현실성을 의문시하면서, 꼭 십만이 있어야 외적을 방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조식은『남명집』(갑오본)「학기유편」권4, 〈치도〉에서 '정전'과 '軍賦'를 말하면서 현실성 있는 均田制와 부병제적인 부국강병책을 논하고 있다."

82) 김충열,「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학문정신」『한국의 사상가 10인-남명조식』, 예문서원, 2002, 57쪽

83) 남명 조식 선생의 연보에는 명종 12년(1557)때로 기록하고 있다.『(국역)南冥集』, 한길사, 2001, 603쪽

일찍이 찾아왔는데 성제원이 마침 자리에 있었다. 조식과 공은 비록 초면이었으나 친함이 옛 친구와 같았고 서경덕, 이지함이 또한 동행해 와서 함께 수일을 즐겼다. 조식이 장차 떠나려 하니 공이 미리 전별하는 자리를 中路에 베풀고 홀로 따라가 전송하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그대와 내가 중년으로 각기 다른 지방에 있으니 다시 보기를 어찌 기약하겠는가?"하였다. 이준경이 이를 듣고 탄식하기를 "당시에 응당 德星이 하늘에서 움직였다."고 하였다. 얼마 후에 공이 죽었다.[84]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었던 서경덕과 조식이, 성운과 성제원의 교유를 매개로 보은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고 수일간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東州集』에서도 성제원이 보은현감으로 있을 때, 서경덕과 조식, 이지함이 먼 곳에서 와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85], 『花潭集』의 「遺事」에도 송시열의 문집을 전거로 하여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다.[86]

이들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식과 서경덕의 만남의 매개가 되었던 성제원은 김굉필의 학통을 계승한 柳藕의 문인으로, 유우 또한 "天文 · 卜筮 · 律呂 · 算數 · 書畫에 각각 그 묘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다방면의 학문에 관심을 보인 인물이었다.[87] 이러한 유우의 학풍은 성제원의 학문 형성이나 교유관계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성제원의 「師友錄」에는 조식 · 성수침 · 성운 · 송인수 · 서경덕 · 정렴 · 이지

---

84) 『燃藜室記述』권11, 「明宗朝故事本末」 明宗朝遺逸 成悌元, "成運隱俗離安靜快談琴書自樂 曺植嘗來訪公適在坐 植與公初面親若舊友徐敬德李之菡亦連袂 而至同歡數日 植將行公預設餞席于中路 獨追而送之執手泣別曰 君我俱中年各棲異鄉 更面詎可期乎 李浚慶聞之歎曰 當時應有德星動於天 公未幾下世."

85) 『東州先生遺稿』 「年譜」32年(1553), "先生在縣時 南冥土亭花潭皆遠至 爲對牀蓮夜語 李相國浚慶聞之曰應有德星見於天矣." 하지만 성제원이 고을원으로 있을 때 조식이 보은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는 1557년의 일로 화담은 11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따라서 그때 조식과 화담이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식, 『(국역)南冥集』 「次徐花潭韻」, 한길사, 2001, 137쪽, 각주359

86) 『花潭集』권3 「遺事」, "曺南冥徐花潭李土亭皆間世名賢 東洲嘗宰報恩 南冥土亭花潭皆遠至 爲對床連夜語 李相國浚慶聞之曰 應有德星見於天矣(出尤庵時烈文集)."

87) 『燃藜室記述』권9 「中宗朝遺逸」 柳藕, "天文卜筮律呂算數書畵 各極其妙."

함・이중호・서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서 조식과 서경덕, 성제원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기질 상으로 통하는 점이 많았다.

『明宗實錄』에 기록된 성제원의 인물평은 이들의 기질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성제원은 사람됨이 세상 밖에 방랑하여 인간세상을 하찮게 보는 뜻이 있었다. 스스로 술과 시에 취하고, 노래하는 것을 흥취로 삼았고, 가슴속은 曠達하여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나아가 보은현감이 되었을 때 정치에는 청렴 간결한 것을 숭상하고 敎化를 급선무로 삼았으므로 治平이 제일이었다고 한다.[88]

성제원을 표현한 이러한 기질은 조식, 서경덕, 성운, 성제원 모두에게 공통된 요소였다.[89] 이 밖에도 『海東野言』에는 조식과 성제원의 만남을 기술하면서 "초면임에도 옛 친구와 같았다"고 하여 이들 사이에는 서로 통하는 면이 많았음을 암시하고 있다.[90]

조식은 자신과 비슷하게 처사적 입지를 지킨 성운이나 성제원이 정계 전면에 등용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는데, 성운에게 보낸 시에는 성운을 오래된 조개에 저장된 明月珠에 비유하고 국왕이 가짜만을 찾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으며,[91] 성제원이 보은현감을 맡은 것은 그의 능력에 비해 작은 일임을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92] 이들에게 보낸 시들의 이면에는 처사형 사림들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었다.

---

88) 『明宗實錄』권14, 8년 5월 辛亥. "悌元爲人 放浪物外 有睥睨人世之意 自以詩酒酣歌爲寓興之物 胸中曠達 一物不能累 出爲報恩縣監 政尙淸簡 以敎化爲先 治平爲第一云 蔡世英爲全羅道觀察使."

89) 『南冥集』 補遺 「행록」에 조식 역시 이러한 기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다.

90) 『大東野乘』「海東野言」 中宗上, "曺徵士健仲植 常來訪山中 子敬(成悌元)在坐 及至相會 健仲與子敬 初面接話 有若舊交 同歡數日."

91) 조식, 『(국역)南冥集』「寄健叔」, 한길사, 2001, 72쪽

92) 조식, 『(국역)南冥集』「贈成東洲」, 한길사, 2001, 69~70쪽

한편, 『南冥別集』에 수록된 「사우록」에는 서경덕의 문인으로 분류되는 이지함, 최역 등의 이력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은 조식과 서경덕 양인을 동시에 존숭한 것으로 보인다.

최역의 이력에는 처음에 서경덕의 문하에서 배우다가 후에 성수침과 조식의 문하에서 배운 것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서경덕과 조식의 학풍과 처세가 일치하는 면이 많았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또한, 조식과 서경덕의 주 활동 무대가 진주와 개성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지역적인 거주지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후대의 문인들이 두 사람을 종주로 하는 북인학파로 결집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학풍이나 기질의 유사성과 함께 처사형 사림들 사이의 교유라는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93]

여러 기록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당대의 처사들은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부단한 교유관계를 통하여 비정치적 일상의 정치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파악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학파가 형성되었으며, 여러 학파는 그 스승에 따라 학풍이 달랐지만, '천지가 생물에 은택을 베풀 듯이 군주도 인정을 베풀어 민생을 북돋아야 한다.'는 신념이나 지향점은 같았다. 또한 이들은 특정 지역을 경계로 삼지 않았고, 문호를 닫지도 않았으며, 서로의 자아성찰과 사회염원을 확인하고 교류하며, 상호 소통의 망을 갖추어 나갔다.[94]

이들은 상호 소통 망을 형성하면서 군자의 학문을 공부하고 멀리 강호에서 농사를 짓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항상 임금님을 잊지 않고 부름이 있으면 나아가 벼슬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벼슬하다가 자신의 말을 써주지 않으면 부득이 떠날 뿐이니, 애당초 한결같이 산림에 종적을 감추어 이 세상을 외면하고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다.[95]

---

93) 신병주, 『남명학파와 화담학파 연구』, 일지사, 2000, 55~60쪽
94) 이종범, 사림열전, 아침이슬, 2006, 25~26쪽
95) 『南冥集』 補遺 「행록」

이들은 공통된 기질과 사상을 갖고 수기치인을 한 학자들이 정치를 하여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왕도정치 실현을 희망하였던 것이다.

3. 李樑 事件과 曺植

사림들이 상호 소통 망을 구축하는 것을 척신들은 사림들의 정치적 행위로 보았으며, 이러한 행위에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李樑 사건'이다.[96]

문정왕후가 섭정하고 척신들이 전권을 행사하던 명종 치세 전반기는 실로 보복과 살육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을사사화 때 살아남은 반대세력까지 일망타진 하겠다는 '양재역 벽서사건' 후에도 참화는 계속되었는데, 명종 3년(1548) 2월에 일어난 음모사건인 '안명세 사건'과 명종 4년(1549)에 일어난 이약빙의 아들 이홍윤이 역모를 꾸민다는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외척과 권신들은 왕실을 능가하는 부와 권력을 누렸고, 언로를 탄압했다. 성균관의 생원 안사준 등 5백여 명이 올린 상소에 나온다.

> "아,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 행하신 일 중에 인정을 거스르고 언로를 막은 것이 많은데 지금 겉으로 求言하다는 이름을 드러내어 災變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삼으려 하시니, 온 나라의 신민들 중 그 누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분부를 내린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좋은 말 한마디도 얻지 못한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97]

언로의 탄압과 함께 명종은 윤원형이 왕권을 침해하는 것이 심각한 지경에

---

96) 이량 사건은 명종 19년(1564)에 일어났으며, 이량(1519~1563)의 본관은 全州이고 자는 公擧이다. 효령대군 補의 5대손으로, 명종비 仁順王后沈氏의 외삼촌이다.

97) 『明宗實錄』권20, 11년 3월 7일 (丙辰), 2번째 기사.
"嗚呼 殿下卽位以來 所行之事 率多拂人情塞言路 而今者外示求言之名 而以爲應災之文具 一國臣民 誰信其出於眞心耶 無怪乎敎下踰月 未得一嘉言也."

이르자, 이를 견제할 세력으로 명종비의 외숙인 이량을 내세워 윤원형과 대항하려 하였다.[98] 그렇지만 명종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비와 중전의 외척들이 발호하는 결과를 낳았다.

명종 18년(1563) 9월 순회세자의 죽음은 영의정의 직함까지 장악하며 권력을 농단하던 윤원형의 권력을 위축시켰고 반면 이조 판서가 된 이량을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량은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조정의 요직에 포진시키려 하였지만 박소립, 기대승, 윤두수, 이문형, 허엽, 윤근수 등 신진사림이 반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량은 자신을 따르던 대사헌 이감을 조종하여 이들을 탄핵했다.

>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요즘 조정에는 사람 사이에 이론이 없고 일은 안정되어 사대부가 聖明의 陶冶속에 감화되어 다시금 온유하고 돈후한 풍속을 보려나 했더니, 뜻밖에도 부박한 무리들이 소란한 자취를 현저하게 나타냄으로 하여 勿論이 激發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 조짐을 막아 물론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
> 전 정랑 박소립과 사정 기대승은 모두 부박하고 경망한 자질로 고담만을 일삼아 신진들의 영수가 되었고, 전 좌랑 윤두수가 맨 먼저 附會하여 서로 찾아다니면서 국사의 시비와 인물의 장단을 모조리 평론의 대상에 넣고 겉으로는 激揚의 이름을 빌어 장차 나라를 위태롭게 할 풍조를 빚고 있습니다.
>
> 행 대호군 이문형은 자신이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스스로 근신하지 못하고 부박한 무리들을 끌어들여 논의를 주도하는 바람에 문하에 끊임없이 객이 출입하고 있으며 삼척 부사 허엽과 과천 현감 윤근수는 모두가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경연에 입시하였을 때에 애써 과격한 의논을 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의심하고 놀라면서 오래도록 잊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들 역시 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아뢴 대로

98) 『燃藜室記述』권11 「明宗朝故事本末」19년 甲子, "李樑이 귀양 가다."

하라"고 상께서 답하였다.[99]

결국 신진 사림들은 관작을 빼앗기고 도성 밖으로 쫓겨났다. 이량 등은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정권을 잡은 시기가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이 시대를 혼란하게 만든 것은 사림들이라며, 처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신진사림의 제거 소동이 일어난 날『明宗實錄』에 이런 기사가 있다.

> "이량은 사림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밤낮으로 같은 무리를 모아 놓고 쓰러뜨릴 계책을 궁리하던 끝에 사림의 뿌리는 이황과 조식에게 있으니 그 뿌리를 모조리 제거한 뒤에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선 몇 사람을 시험 삼아 해치우고 앞으로 더한 흉포를 자행할 셈이었다."[100]

이량은 기회를 엿보아 사림들의 중심 인물인 이황과 조식을 비롯한 사림계 전체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신하들이 임금이 있는 줄 모르고 이량만 있는 줄 안다."고 한 奇大恒(1519~1564)의 탄핵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량 일파는 몰락하였다.[101]

---

99)『明宗實錄』권29, 18년 8월 17일 癸亥. 啓曰 "朝廷和平 爲國家之福 士林不靖 非盛世之瑞 始雖甚微 而古今治亂之幾 未嘗不由於此 豈不大可畏哉 夫好善而惡惡 人情所同然 見賢思齊 心誠好之 力行而不已 則人皆可以爲善類矣 治世之振作興起者 常切於此 而俗季已久 士習益偸 名爲善類 而實非好善者有之 外若色莊 而內實倥偬者有之 羊質而虎皮 矯情而干譽 無所不至 此非爲善之過也 爲善之假 而其流之弊 轉爲浮薄之習 私相標題 結爲朋比 臧否人物 論議時政 使新進之士 靡然從之 莫知其是非 馴致於士習日誤 國事日非 甚矣高談之害人國家也 已然成敗之跡 明若觀火 而前不知懲 後不知戒 若不早爲防閑 則其何以明好惡之正 絶將來之患乎 臣等伏見 邇來朝著之間 人無異論 事皆寧靜 士大夫相忘於聖明陶鑄之中 庶幾復見溫柔敦厚之風 而不意浮薄之徒 顯有不靖之跡 物論激發 所當杜漸鎭定 前正郎朴素立 司正奇大升 俱以浮妄之資 專以高談爲事 爲新進領袖 前佐郎尹斗壽 先事附會 互相追隨 國事是非 人物長短 盡入評品之中 外假激揚之名 將釀傾危之俗 行大護軍李文馨 身在宰相之列 不自謹愼 而引進浮薄之徒 主張論議 門下之客 出入不絶." 答曰: "如啓."

100)『明宗實錄』권29, 18년 8월 17일 癸亥. "亦嘗怨懟, 知其終不爲所容, 日夜聚其同類, 謀議揣度, 圖所以傾陷之者, 以爲士林之根柢, 莫如李滉、曺植, 將漸而盡去根柢, 然後吾等得以大肆, 而先之以此數人者, 姑試之, 而將肆其兇奸也."

101) 이종범,『사림열전』, 아침이슬, 2006, 186쪽

척신세력들은 사화와 여러 사건을 통해 사림들을 와해시키려 했는데, 오히려 사림들은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교류하면서 사회염원을 서로 확인하고 소통 망을 구축하였으며, 비정치적 삶을 살던 학자들까지도 정치세력화 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들의 권력기반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사림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식은 처사적 삶을 살았지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제기함으로써 척신들의 주목을 받아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신진 사림들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던 것이다.

4. 戊辰封事

척신들의 탄압 속에서도 사림들은 교유를 통하여 상호 소통 망을 형성하고 더욱 더 결속력을 강화시켜 희망의 시대를 준비하였다. 이들에게 그 희망의 싹이 보였으니 그것은 새로운 임금, 선조의 즉위였다.

선조는 명종 14년(1559)에 생부인 德興君을 여의고 명종 22년(1567) 5월에 生母 河東 鄭氏의 상을 당해 즉위할 때는 喪中이었고 아직 혼례를 치르기 전이었다. 따라서 선조의 주변에는 생가나 외가에서 척신으로 성장할 가능성 있는 인물이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선조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사림의 희망, 선조의 즉위는 사림이 주도하는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조정은 활기에 차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척신 정치의 폐단으로 인해 공권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으며 수취체제의 해이와 防納의 폐단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과 병역자원은 극도로 감소되어 갔다. 이로 인하여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고 농촌 경제는 거의 파탄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정치를 주도하게 된 사림은 단순히 척신정치에서 벗어났다는 데 지나친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안보다는 고답적인 이론과 현실과 먼 이상론을 제시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황을 주축으로 하는 정통 성리학이 학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자 주자학적 관념론에 빠진 사류들은 실천을 전제하지 않은 채 虛名을 내세워 盜名欺世하는가 하면, 사림사이에는 선·후배나 학파·지연에 따라 파당적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던 조식은 선조의 출사 명령을 여러 차례 받게 되자 선조 1년(1568) 5월에 「무진봉사」를 올렸다. 그는 선조에게 군주의 爲學治國의 근본과 군신관계 및 善政에 필요한 治政觀을 피력하였고, 「을묘사직소」에서와 같이 군주의 도는 明善과 誠身 및 수기·용인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102] 이는 척신정치의 폐단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의였다.

또한 조식은 이 상소에서 국가 危亡에 관한 국가 운영시스템의 붕괴에 대해서 말하였다.

> "옛날부터 권신·척리·부사가 나라를 전횡한 일은 혹 있었지만,[103] 지금과 같이 胥吏가 전횡하는 예는 일찍이 역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 정치권력이 大夫에 있는 것도 옳지 않은데 하물며 서리의 손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당당한 千乘의 나라로서 朝宗 2백 년의 遺業을 기록하면서도, 많은 공경대부가 앞뒤 서로 모두 袖手傍觀한 채 미천한 서리에게 정사를 위임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차마 소의 귀에도 들려 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징세 조역과 공물 진상을 위시하여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업무가 온통 서리의 손안에 있으니, 이는 간교하기 짝이 없는 莽卓의 경우에도 이런 일은 없으며, 비록 亡國之世라도 또한 이런 일은 없습니다."[104]

---

102) 권인호, 「남명학파의 실학사상 연구」『한국의 사상가 10인-남명조식』, 예문서원, 2002, 270쪽
103) 부사란 왕후 이하의 왕 주위의 여자들과 환관을 말한다.
104) 조식, 『(국역)南冥集』「戊辰封事」, 한길사, 2001, 320~325쪽 "무진봉사의 내용에 대하여 『

조식은 국가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국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척신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척신에 의한 인사의 전횡은 관료사회의 기강 문란과 부정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정치 문란으로 귀결되었고 관권을 이용한 사적인 이익 추구는 국고의 탕진과 민생의 파탄을 가져와 조세 정책의 폐단으로 나타나고 이를 관장하는 서리까지도 민중을 수탈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조선왕조의 양반관료 체제하에서 외관상으로는 양반사대부가 벼슬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리직만 양반 관료가 쥐고 있을 뿐, 행정 실무는 중인 계층인 서리가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양반들이 과거에 합격하기 위하여 詩賦와 經史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행정 실무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임관 후에도 모든 업무를 서리에게 일임한 채 주자학적 관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반 정치의 악폐와 민생의 고통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105]

조식은 이어 말하기를,

> "서리들이 도적이 되어 모든 관청에 무리지어 들어가 雄據하고 요직을 차지하고서 國脈을 결딴 낼 뿐만 아니라 천지신명에게 제사지내는 犧牲까지 도적질하여도 법관은 감히 묻지 못하고 형조도 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혹 하급의 젊은 관리를 조금 糾察하려고 해도 오히려 見責과 罷免이 그들의 손아귀에 달려 있고 관리들의 무리들은 손을 묶어놓고 일을 하지 않으며 근근이 祿俸이나 받아먹으면서 아첨하며 따르는 지경이니 이것이 어찌 믿는 바가 없고서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106]

서리가 도적과 같이 무리를 이루어 나라를 결딴내고 사직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하였음을 단호하게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 서리들을 규찰하

宣祖實錄』권2, 1년 5월 26일 乙亥, 1번째 기사에서도 말하고 있다."

105) 이수건,「남명 조식과 남명학파」『한국의 사상가 10인-남명조식』, 예문서원, 2002, 119~120쪽

106) 조식, 『(국역)南冥集』「戊辰封事」, 한길사, 2001, 325~326쪽

고 심문하여 죄를 논하고 사태를 예방해야 할 사헌부나 형조 등의 조정에 있는 권신들이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민중을 수탈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조식은 또,

> "만약 언관이 이것을 논박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따른다면 선악의 소재와 是非를 분별하는 바를 알지 못해 임금의 도리를 잃게 됩니다. 어찌 임금이 그 도리를 잃고서 능히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선악이나 시비가 현실을 떠나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민중이 도탄에 빠진 실정도 모르면서 倫理道德·上下綱常·天理人心 운운하는 것은 현실 정치의 모순을 호도하기 위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면서 임금이 현실을 정확히 분별하여 선악시비를 가리고 이에 근거하여 정치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107]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왕실을 비롯한 권력 상층부의 부패 혹은 전쟁으로 인해 재정이 파탄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조세의 과다징수는 민심을 이반하게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하였다.

조식의 상소에 나타난 통렬한 비판은 公義와 公益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108] 후세 실학자들의 時宜求弊적 경세사상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109]

조식은 정치 전면에서 한걸음 물러나 처사적인 삶을 살았지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왕도정치실현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상소라는 정치행위를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하고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실천적 학자이자 실천성을 강조했던 정치가였던 것이다.

---

107) 조식, 『(국역)南冥集』「戊辰封事」, 한길사, 2001, 327쪽
108) 이종범, 『사림열전』, 아침이슬, 2006, 23쪽
109) 권인호, 「남명학파의 실학사상 연구」『한국의 사상가 10인-남명조식』, 예문서원, 2002, 271~295쪽

Ⅴ. 맺음말

지금까지 16세기를 대표하는 조식의 학문 형성의 배경, 학문과 출처관,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식의 학문이 형성된 데는 모계와 처가의 경제적 기반과 경상우도라는 지역적 배경이 큰 역할을 하였다. 부계는 보잘것없는 가세인데 반하여 그의 외계는 丹城縣을 중심으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처가 또한 김해에서 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진 부호였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조식이 끝까지 처사적 삶을 살면서 학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의'를 숭상하는 기질이 있는 경상우도는 사림의 중심인물인 김종직, 김굉필, 김일손, 정여창 등이 살면서 활동하였던 곳으로 이 지역을 근거지로 삼았던 조식은 사림파의 학풍에 보다 쉽게 젖어들어 들 수 있었으며 지식인들에게 자득과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 지리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한 조식은 성리학자이면서도 성리학에 대한 맹목적인 穿鑿보다는 程朱의 학문적 요체를 밝혀 실천에 힘쓰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면 어떤 학문이든 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老 · 佛 및 陽明學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후대로 가면서 성리학자로서의 조식의 모습이 퇴색되고 그의 학문에 나타난 노장적 기풍이나 양명학적 성향이 지나치게 부각되었는데 이는 조선중기 이후 주자성리학의 흐름이 주류가 되고, 정치적으로 조식의 문인들이 도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조식은 성리학 자체에 대해서도 현실에 도움을 주는 실천 중심의 학문인 '敬 · 義'를 중요시 하였다. '경 · 의'를 통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왕도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세상을 기다리며 조식은 처사적 삶을 살았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목도하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왕도정치

실현을 '학문적 실천'으로 여겼다.

단성현감에 부임하지 않고 올린 「을묘사직소」를 통해 임금이 수신하여 안으로 천덕을 쌓고 밖으로 왕도를 실현하라는 내용을 건의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러한 실천행위의 일환이었다.

조식은 지방에 살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교유하며 지냈고, 지향하는 신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자아성찰과 사회염원을 확인하고 교류하며 상호소통 망을 갖추어 나아갔는데 이러한 모습이 척신들에게는 정치적 행위로 비추어 졌으며 척신들은 자신들의 권력기반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사림들을 제거하려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량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조식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은 더욱 드러났다.

척신들의 탄압 속에서도 사림들은 선조 때 정계를 주도하게 되었지만, 장기간의 척신정치로 파탄에 이른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자학적 관념론에 빠져, 파당적 분위기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조식은 「무진봉사」라는 상소를 통하여 군주의 도에 대하여 말하고, 권신들의 滅私奉公적이지 못한 자세는 결국 하급 관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하급 관리인 서리가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하며 현실 문제를 통렬히 비판하였다. 조식의 이러한 현실 인식은 후세의 실학사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고찰해 본 조식의 삶은 비정치적 노선을 끝까지 지키면서도 현실정치 속에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이는 조선중기 이후 山林이 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으며 상소라는 정치행위를 통하여 현실 속에서 왕도정치가 실현되어 백성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 즉 문명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것이다.

가치혼돈의 시대에 빠져있는 오늘날 현대인들도 조식의 생애와 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예의와 염치가 있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문명사회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 이러한 문명사회의 실현에 조식의 실천적 현실인식이 역사적 본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1. 자료

『南冥集』

『學記類編』

『燃藜室記述』

『東州先生遺稿』

『星湖僿說』

국사편찬위원회(영인),『朝鮮王朝實錄』, 1955

조식,『(국역)남명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1

김종직,『(국역)점필재집』, 민족문화추진회, 1999

2. 저 서

권인호,『조선중기 사림파의 사회정치사상-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길사, 1995

고영진,『조선시대 사상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풀빛, 1999

김돈,『조선전기 군신권력관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우기,『조선중기 척신정치 연구』, 집문당, 2001

김준석,『한국중세 유교정치사상사론 Ⅰ · Ⅱ』, 지식산업사, 2005

뚜웨이밍,『뚜웨이밍의 유학 강의』, 청계, 2001

미우라 쿠니오,『왕안석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 책세상, 2005

배종호 외,『한훤당의 생애와 사상』,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1996

부남철,『조선전기 7인의 정치사상』, 사계절출판사, 1996

소공권,『중국정치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신병주,『남명학파와 화담학파 연구』, 일지사, 2000

설석규,『남명학파 정치철학 연구』, 남명학연구원, 2001

시마다 겐지,『주자학과 양명학』, 까치, 1986

오이환 편저,『남명 조식』, 예문서원, 2002
윤호진,『남명의 인간관계』, 경인문화사, 2006
이병도,『한국유학사』, 아세아문화사, 1987
이병휴,『조선전기 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1999
이수건 외,『점필재 김종직의 학문과 사상』, 금오공과대학 선주문화연구소, 1996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이수건 외,『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이종범,『사림열전1』, 아침이슬, 2006
이태진 편,『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개정판)』, 태학사, 2003
-----,『한국 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6
-----,『조선 유교사회사론』, 지식산업사, 1989
장지연,『조선유교연원』1, 2, 솔, 1998
정재경,『정여창 연구』, 집문당, 1988
정홍준,『조선중기 정치권력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조남욱,『정여창-조선조 실천유학의 선구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조남호외,『남명 조식의 철학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진래,『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최석기,『나의 남명학 읽기』, 경인문화사, 2005
-----,『남명과 지리산』, 경인문화사, 2006
-----,『남명 정신과 문자의 향기』, 2007
최승희,『조선초기 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2002
최이돈,『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 연구』, 일조각, 1994
풍우란,『중국철학사』上, 下, 까치, 2007
한국사상사연구회,『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한영우,『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정도전 사상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황의동,『한국의 유학사상』, 서광사, 1995
허권수,『남명의 산문선』, 경인문화사, 2006
-----,『남명의 한시선』, 경인문화사, 2006
-----,『절망의 시대 선비는 무엇을 하는가』, 한길사, 2001

3. 논 문

고석규,「정인홍의 의병활동과 산림기반」『한국학보』51, 1988
고영진,「16세기 호남사림의 활동과 학문」『남명학연구』3, 1993
권인호,「남명의 경세사상 연구」『남명학연구논총』2, 1992
-----,「남명학파의 실학사 연구」『남명학연구논총』5, 1997
-----,「남명 조식의 현실인식과 출처사상 연구-시대적 인물에 투영된 퇴계 이황의 출처사상과 비교하여」『남명학연구논총』3, 1995
금장태,「남명 조식의『학기도』와 도학체계」『조선전기의 유학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김경수,「사림파의 전통에서 본 남명의 사상」『남명학연구논총』2, 1992
김돈,「중종대 언관의 성격변화와 사림」『한국사론』10, 1984
----,「16세기 전반 정치권력의 변동과 유생층의 공론 형성」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김범,「조선 중종대의 역사상의 특징과 그 의미」『한국사학보』17, 2004
----,「조선 성종대의 왕권과 정국운영」『사총』61, 역사학연구회, 2005
----,「조선 연산군대의 왕권과 정국운영」『대동문화연구』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김용흠,「조선전기 훈구 · 사림의 갈등과 그 정치사회적 함의」『동방학지』124, 2004
김윤제,「남명 조식의 학문과 출사관-퇴계 이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사론』24, 1991
김정신,「조선전기 사림의 '공의식'과 군신공치론 - 조광조 · 이언적의 학문·

정치론」『학림』21, 2000
김준석,「조선전기의 사회사상-소학의 사회적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29』, 1981
김충렬,「생애를 통해서 본 남명의 위인」『대동문화연구』, 1983
김훈식,「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역사와현실』50, 2003
박병련,「남명 조식의 정치사상과 사상사적 位置」『정신문화연구』통권68호, 2000
-----,「광해군 복립모의 사건으로 본 강안지역 남명학파」
『남명학연구논총』11, 2002
백승종,「16세기 조선의 士林政治와 金麟厚 - 非政治的 日常의 政治性」
『진단학보』, 2001
사재명,「남명과 문인의 교육연구동향」『남명학연구논총』13, 2004
설석규,「선조·광해군대 남명학파의 정치운영론」『남명학연구논총』5, 1997
-----,「16세기 처사형 사림의 성리학 이해와 출처관-화담 서경덕과
남명 조식의 경우」『남명학연구논총』9, 2000
-----,「17세기 남명학파의 정치적 분화와 문경처의 역할」
『남명학연구논총』11, 2002
송웅섭,「중종대 기묘사림의 구성과 출신배경」『한국사론』45, 2001
신병주,「남명 조식의 학문경향과 현실인식」『한국학보』16-1, 1990
-----,「남명 조식의 학풍과 남명문인의 활동」『남명학연구논총』3, 1995
-----,「화담 서경덕의 학풍과 현실관」『한국학보』22-3, 1996
-----,「16세기초 처사형 학자의 학풍과 현실관」『남명학연구논총』5, 1997
-----,「대곡 성운의 학풍과 처세」『남명학연구논총』7, 1999
-----,「처사형 사림의 학풍연구-남명학파와 화담학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선조후반에서 광해군대의 정국과 정인홍의 역할」『남명학연구』11, 2001
-----,『남명학연구논총』의 연구성과 정리-역사학분야」
『남명학연구논총』13, 2004

신병주,「조선시대의 선비정신과 선비학자들의 활동-16세기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논총』13, 2004
-----,「조선중기 남명학파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조선시대사학보』35, 2005
-----,「16세기 남명 조식의 학풍과 현실인식」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2007
신향림,「소재 노수신의 공부론에 나타난 양명학」『한국사상사학』24, 2005
-----,「16세기 전반 양명학의 전래와 수용에 관한 고찰-김세필, 홍인우, 노수신의 양명학 수용을 중심으로」『퇴계학보』118, 2005
이광호,「남명과 퇴계이 학문관 비교」『동방학지』118, 2002
이동환,「조남명의 정신구도」『남명학연구』창간호, 1991
이동희,「회재 이언적의 생애와 사상」『한국학논집』19, 1992
이병휴,「조선초기 사림파와 탁영의 현실인식 및 대응」『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출판부, 1998
-----,「朝鮮初期의 士林派와 濯纓의 현실인식의 대응」
『민족문화연구총서』20,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8
-----,「조선전기 소외관인의 은거생활-김안국, 김정국의 경우」
『역사교육논집』31, 2003
-----,「15世紀後半 · 16世紀初의 社會變動과 金宗直 및 그 門人의 對應」
『歷史敎育論集』35, 역사교육학회, 2005
이상원,「남명학파에 있어서 오덕계의 위상」『남명학연구논총』7, 1999
-----,「남명 한시의 미학」『남명학연구논총』9권, 2001
이상필,「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사상과 학파의 추이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이수건,「남명조식과 남명학파」『민족문화논총』2·3합집, 1982
-----,「남명과 남명학파」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88
-----,「남명학파 의병활동의 역사적 의의」『남명학연구』2, 1992
-----,「영남학파와 남명조식」『동방한문학』11, 1995
-----,「명종말 선조초 퇴계 이황의 정치적 위상」『민족문화논총』30, 2004

이을호,「남명 조식의 입지적 위치」『한국철학연구』, 1978
이재희,「조선 명종대 '척신정치'의 전개와 그 성격」『한국사론』, 1996
이종묵,「남명 조식의 삶과 시」『한국한시작가연구』5집, 2000
이종범,「조선후기 동복지방 진양 하씨가의 학문과 전승」『호남사학회』, 2005
이태진,「16세기 사림의 역사적 성격」『대동문화연구』13, 1979
정우락,「남명 조식과 남명학파」『동방한문학』17, 1999
정낙찬,「남명교육방법론의 현대 교육적 의미」『남명학연구논총』11, 2002
조남호,「이황 철학의 새로운 해석」『철학사상』21, 2005
채휘균,「남명학파의 교육사상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9
최석기,「남명의 성학과정과 학문정신」『남명학연구』창간호,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1
최영성,「조남명의 학문정신과 출처관 연구」『남명학연구논총』4, 1996
한상규,「남명의 교과지도론」『남명학연구원』4, 1996
-----,「정전에 실린 남명의 역사적 평가(1)」『남명학연구논총』5, 1997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남명의 역사적 평가(2)」『남명학연구논총』6, 1998
-----,「조선시대 사림의 정신세계-소학 교육을 중심으로」『남명학연구논총』7, 1999
-----,「남명의 학풍이 강우지방 교육문화에 미친 영향」남명선생탄신 50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논문집『남명학연구원』, 2001
-----,「능허 박민의 남명학정신과 성향」『남명학연구논총』11, 2002